



통권31호

후원회 소식

발행일/1994. 4.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02)763-2606 · 745-5604



••• 다시찾은 우리의 생일!!

35년만에 부활한 제104주년 세계노동절을 기념하는 행사가

지난 5월 1일 서울 동국대에서

2만여명의 노동자가 모인 가운데

전노대(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주최로 열렸다.

후원회 6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편집부

십수후원회 제6차 정기총회가 지난 4월 23
일 늦은 4시부터 8시까지 서울 종로성당 노
동사목회관에서 후원회원과 축하손님 180
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부푼 열기와 당찬 결의
로 치루어졌습니다.

총회 <1부>는 이덕우 운영위원의 사회로 여는
말씀, 민중의례, 그리고 권오현 회장이 모시는 말
씀, 노래패 “푸른물결”이 고마운 축하노래를 불러
주셨고 총준위원장 홍근수 목사님의 총준위경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 5차년도 사업, 활동 및
결산보고(회장), 감사보고(진관스님)를 다른 의견
없이 받아들인 다음 5차년도 기간에 큰 활약을
한 고마운 회원 7분에게 회원 모두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6차년도를 이끌어 나갈 새
일꾼으로 회장단과 운영위원은 총준안을, 감사는
총회추천으로 뽑았으며 두분 지도위원(김승훈 신
부님, 박현서 교수님)에 새로 박용길 장로님과 홍
근수 목사님을 추대하였습니다.

총회는 또 이정규 운영위원이 제안 설명한 6차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큰 박수로 채택하였
습니다. 이어서 안재구 (전 경북대, 숙명여대 교
수,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를 치루심), 이부영(국
회의원, 민주당 최고위원), 권낙기(전 민가협 공
동의장, 통혁당 사건으로 옥고치루심), 윤성식(사
월혁명연구소장) 선생님께서 격려말씀을 해주셨
고 이희두 회원이 힘차게 낭독한 총회결의문을 크
게 손뼉쳐 채택함으로써 1부순서를 마쳤습니다.

회원들의 여는무대에 이어 <2부>순서는 후원회
송록회 간사의 사회로 먼저 푸른영상에서 애써
준비한 출소장기수 선생님들의 생활모습과 후원
회원의 활동모습을 담은 비디오 상영이 있었고
새세대, 음시통감시통, 진달래청년, 서울산업대
89모임, 단대 법사회학회 등의 노래와 춤자랑 그
리고 회원들과 민가협 어머니들, 장기수 선생님
이 함께하는 춤사위와 조촐하게 차려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다시한번 후원회의 할일을 다짐하고
서로 격려 성원하며 마지막으로 손에 손잡고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부르며 아쉬운 막을 내렸
습니다. (김병오(국회의원, 민주당 정책위원장),
한청협, 건대인권위 등 여러곳에서 축전을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패를 받으신 분들

1)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김수환 추기경님

(종로성당 정웅모 주임신부님이 대신하여 받으셨
습니다)

93년 5월 일본 천주교 사교협의회와 일본 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에서 보내주신 고귀한 사랑의
성금을 추기경님께서 기꺼이 양심수후원회에 전
해주셨고 격려를 해주셨으며 언제나 소외되고 고
통받는 이들에 큰 관심과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
해오셨습니다.

2) 주명순 선생님(회원)

양심수들에 한결같이 큰 관심과 후원을 해오셨고, 특히 양심수후원회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무연고 출소선생님들의 집마련사업에 큰 성금을 보내주셔 낙성대 '만남의 집'을 마련하고 93.3.6. 석방된 선생님을 모실 수 있었습니다.

3) 워싱턴 수도장로교회 믿음공동체(조명철목사)

갈라진 조국의 평화와 통일에 힘쓰시고 고난받는 양심수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자 지난 1년간 많은 성금과 양심수 자녀장학금, 그리고 정성어린 많은 편지를 감옥에 보내주셨습니다.

4)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유영진공동대표께서 받으셨습니다., 원자력 병원 근무중)

인도주의 실천과 국민건강을 위해 늘 힘써오셨고 양심수후원회 제5차년도 특별사업으로 추진한 출소하신 장기복역 양심수들의 종합검진과 진료를 해주셨고, 큰 건강기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5)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성열수회장님)이 받으셨습니다)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늘 헌신해오셨고 양심수후원회 제5차년도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던 출소하신 장기복역 양심수들의 구강검진과 보철 등 큰 비용으로 해주셨습니다.

6) 최진만(회원)

새벽을 여는 바쁜 일을 하시면서도 후원회와 민가협의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말없이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높은 신뢰와 우정으로 회원들과 관계를 맺어오는 모범회원이십니다.

7) 김은숙

고난당하는 양심수들과 출소하신 선생님들께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헌신해 주셨고, 특히 두달간 고 이래선 선생님이 위암으로 병상에 계실 때 밤낮으로 아무도 하기 힘든 간병을 하셨습니다.



◀
6차 회기를 이끌어 나갈
새 일꾼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
총회에 참석해 주신
축하 손님들

6차총회에서 새로 뽑힌 일꾼들

지도위원

김승훈(여의도 본당 신부님,

정의구현전국사제단 공동대표)

박현서(한양대 사학과 교수)

박용길(장로, 사단법인 통일맞이 철천만

겨레모임 이사장)

홍근수(향린교회 담임목사,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회의 상임의장)

회장단

권오현 회장(다시 뽑힘, 민가협 공동의장)

조만조 부회장(" , 전 민가협 공동의장)

윤정모 부회장(" , 소설가, 민족문학작가회의)

운영위원

김영옥(다시 뽑힘, 남민전 사건으로 옥고,
민자통)

이덕우(" , 변호사, 헤마루합동법률사무소)

김지영(" , 의사,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소수영(" , 전 서민통 활동)

이정규(" , 출판사 근무)

이균영(새로 뽑힘, 교수, 동덕여대 국사학과,
소설가, 민교협)

감사

진관(다시 뽑힘, 스님,

불교인권위원회 운영위원장)

김규철(새로 뽑힘, 회사원,

전 임수경후원사업회 감사)

• 지난 1년간 바쁘신 틈에도 감사를 해주셨던

박창원 선생님께 감사 드립니다.

사무국 간사

송록희, 송소연

격려의 글

다음 글은 감옥안의 장기수 선생님들께서 후원회 총회를 축하해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총회를 4월 23일에 가진다는 소식을 떠칠전에 듣고 그동안 여러분님들의 친 혈육에 진배없는 그지없는 사랑과 보살핌, 해아릴 수 없는 은혜에 감사의 인사를 전할 길 없어 항상 애타던 터, 기회다 싶어 기쁨과 영광에 넘쳐 편지 쓸 기회 흔치 않고 따라서 잘 쓸 줄도 모르는 글월을 몇자 적어보냅니다.

먼저 저희들을 위하여 피를 말리고 살을 에이며 뼈를 깎기는 듯한 어려움과 갖은 고통을 다 이겨내면서 잔고분투하시는 박용길, 권오현, 서경순, 윤혜경 의장님들을 비롯한 여러 실무일꾼들과 어머님들에게 최대의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없이 열심히 후원활동을 하시면서 편지나 영치품을 보내주시는 관계로 후원회의 많은 회원분들을 기억하고 있으나 지면과 기타 여러가지 여건상 일일이 거명 인사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결례를 무릅쓰니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하건대 몇해전까지만 해도 저희들의 생활이란 그 참담하다 함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으며 참으로 고난에 찬 기나긴 세월이었습니다. 하나 이제는 여러분님들의 막대한 후원에 의하여 물질적으로 풍요함은 물론이고 우선 이제는 어느 누구도 저희들을 합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마음 든든함과 믿음으로 하여 일종의 어떤 해방감마저 느끼며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개무량합니다.

얄팍해지기만 한 이 늙은이의 가슴에도 뜨겁게 끓어넘치는 감정을 억제할 수 없어 주체할 수 없

이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훔지며 다시 한번 깊숙히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이 땅위에 여러분님들과 같은 양심이 살아 있는 한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장래는 탄탄하며 오직 영광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희망과 용기 그리고 힘을 잃지 않는 것만이 여러분님들의 태산같은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더욱 더욱 굳게 살겠습니다.

우리세대의 고생으로 끝내야지요.

결코 자랑스러울 것이 없는 장기수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후원회의 모든 선생님들께 최대의 경의와 형제적 인사를 드립니다. 요즈음 세태가 늙은 부모님도 돌보지 않고 돈이 없으면 죽어가는 환자도 문전박대하는 병원이 있고, 이익을 위해서는 단두대도 불사하는 자본과 놀부가 찬양되는 시대에 누가 보아도 바보스럽기만 하고 고생질이 훤히 내다보이는 데도 결단을 내리시였으니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있음으로 하여 또 직접 참가는 하시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나마 동참하고 계실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데로부터 민족의 정기가 살아 숨쉬고 그래도 오락한 이 세체를 살맛나게 하고,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욕을 고무합니다. 후원회는 빙약한 물질적 여건에서 출발했으면서 단시간내에 엄청난 사업을 하였다는 것을 몸으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송금은 물론 의복.도서.서신.면회를 비롯하여 출소자들에게까지 주거지 마련, 병자에 대한 치료, 심지어 죽은자의 무덤까지 수고를 하여 주십니다. 신문을 비롯하여 각종 출판물 및 전파매체를 비롯하여 가두연설, 면회, 단식농성, 정부여당에 탄원과 항의, 악법폐기의 요구, 양심수 및 장기수 전원석방에 대한 끈질긴 요구등 이루 다 헤아릴 수 없군요.

그런데 후원회 사업후 생각해 보면 할 일도 많고 돈쓸 일도 많을 것 같은데 우리에게 너무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그 어려운 여건에서 모든 돈을 쓸 곳도 많은데 자신들은 몸으로 매우 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있는 저희들에게 보내주시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내주시는 뜻은 감사합니다만 더 진요한 곳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이곳에서 학생들이 정치서적 몇권 읽었다고 무기형을 살린다던가, 일본 유학가서 조총련체 친척 만났다고 무기형을 주고 감형도 없이 그냥 살리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남북어부 사건이라든가 재일교포관제 문제는 참 어처구니 없이 아무것도 아닌데 고문이 무서우니 우선 매를 모면하겠다고 하리는데로 하여 놓고 재판에서 뒤집는다는 것이 그냥 인정되어 무기로 살고 있는 부들이 있습니다. 이 부들만이라도 먼저 석방이 되었으면 합니다.

후원회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일까. 언제쯤 그것이 이루어질까. 장기수가 더는 만들어질 수 없는 정치풍토가 이루어져서 후원회 자체의 필요성이 없을 때리야 목표가 이루어질 것 같군요. 결국 외세가 배제되고 남북이 화해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때 비로서 장기수 문제는 끝날 것 같군요. 통일이 되어야 일생동안을 징역사는 문제가 끝날 수 있다면 우리 세대의 고생으로 끝을 내야지 후대들에게 이 저주스러운 장기수라는 불명예를 지게 할 수야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들이야 말로 남북관계의 기압체라고도 할 수 있지요. 정상적으로 우리가 출소할 때 우리나라 문제는 해결될 것이니까요. 그래서 고집불통 소리를 들으면서 계속 징역을 삽니다. 이런 뜻에서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우리 뜻을 이해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이 아닌가 스스로 진단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후원회 사업에서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암(癌) 보다 강한 노동자 선생님

편집부

이 번 총회 보고서에 실린 출소장기수 선생님 종합검진 보고서를 보면, 가장 위에 왕영안 선생님의 병명이 게재되어 있다. [왕영안 : 진행성 위암, 비활동성 결핵, 신낭종 좌측 - 위암 2기로 수술 가능성 있으나 본인이 수술권유 듣지 않고 민간용법 중임.] 식이요법을 하시기 때문에 후원회 행사때 차린 음식들을 드시지 않을 때와 산행때 도시락을 직접 싸오실 때 선생님이 환자라는 것을 간혹 느끼기는 하였지만, 이처럼 어마어마한(?) 병을 가졌다고는 전혀 짐작도 가지 않을 만큼 늘 밝고 건강한 웃음을 짓는 분이셨기 때문에 이 병명은 더욱 놀라웠다.

왕영안 선생님과 조창손 선생님이 격일로 일하시는 강남구 신사동의 주차장으로 선생님을 찾아뵌 날은 유난히 밝은 햇살이 내리쬐었다. 주차를 시키고 차를 찾아가고 하는 사람들과 친근한 인사를 나누시는가 하면, 옆건물의 관리인 아저씨가 선생님과 이야기나 할까 싶어서 찾아오시는 등 한눈에도 선생님의 낙천적이고 따뜻한 생활을 엿볼 수 있었다. 선생님이 일터에서 생기는 재미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는 동안 그저 심심하고 평범한 주차장일뿐인 그곳이 마치 시골 길목의 넓은 평상으로 착각될 만큼 정겨운 분위기였다.

왕영안 선생님은 1926년에 왕건 태조의 사당이 있는 경기도 연천에서 태어나셨고,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서울 성북동으로 이사와서 국민학

교를 졸업하셨다. 14살 때부터 청파동에서 철공부분 노동자로 일하신 선생님은 더 배워야겠다는 생각에 17살에 일본회사의 모집에 응하였다. 일본에서 낮에는 미쓰비시 비행기공장의 기능공으로 일하고 밤에는 야간 기계전문학교를 다니는 생활을 하셨지만, 전쟁으로 사실상 공부는 거의 못하게 되었고, 해방이 될 때까지 일본에서 일하셨다.

해방이 된 후 조총련 오까야마 지부에서 잠시 일을 하시다가 서울로 돌아오셔서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하셨다. 이때부터 선생님은 민주청년동맹에 가입하여 활동하였고, 그후 6.25까지 남로당 활동을 하셨다. 선생님의 활동은 당사자 키기, 간부들 호위하기 등의 주로 행동대원으로서의 일이었다고 한다. 인민군이 서울로 들어온 뒤에는 성북 구역당의 일을 하셨고, 9월 북으로 올라가신 뒤 인민군 훈련을 받고 전쟁에 합류하셨다. 선생님은 기계공 전력때문에 보병에서 기술부 수송부대로 옮기셨고, 이때 자동차 운전을 배우셨다고 한다.

53년 정전이 된 뒤 북한은 초가집 하나 없을 만큼 폭격으로 인한 피해가 심했다고 한다. 따라서 조속한 시설복구가 필요하였고, 선생님은 북에서 가장 큰 규모였던 홍남의 용성기계제작소 복구 작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1차제대를 하셨다. 그곳에서 1급 기능공으로 일하시면서 당 위원으로 선출

되어 활동하셨다. 선생님은 서울에 딸 하나와 처를 두고 오신터라, 북에서 많은 혼담이 오갔지만 계속 마다하시다가 뒤늦게 56년 재혼을 하시고 아들 하나에 딸 둘을 가지셨다. 서울에 사신 부인은 선생님이 북으로 가신뒤, 모진 고생을 하시다가 재혼을 하셨다고 한다.

선생님은 1급 기능공으로서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북에서는 1급기능공의 월급이 거의 장관급과 같다고 한다.- 포기하시고, 58년 당의 권유를 받아들여 조국통일사업에 참여하시기로 하셨다. 서울에 오신뒤 닷새만에 경찰에 잡힌 선생님은 1심 사형, 2심 사형, 3심 무기를 선고받고 33년간의 긴 옥생활을 시작하셨다.

선생님이 감옥에 계실때 가장 마음에 실망했던 적은 7.4남북공동성명때라 한다. 간수들조차도 이제 당신들 풀려날 것이라고 말할만큼 무엇인가 달라지는 듯한 분위기였으므로, 선생님들의 마음 속 기대도 자연 자라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광복절 사면에 앞서 8월9일 사형수 3명을 모두 사형집행하는 것을 보며, 선생님은 7.4공동성명이 모두 거짓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동지들과 우리는 죽기 전에는 여기서 나가지 못할 것이라며, 마음을 다잡으면서도 가슴속의 실망은 너무도 커울 것이다.

7.4공동성명이후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는 포로로 전부 돌려보내야 하기때문에, 정부의 전향공작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전답반이 조직되어서 사회참관을 시켜주고 그후 감상문을 써낸뒤에 잘못쓰면 구타하는 등 많은 공작이 자행되었는데, 이때 대구옥에서는 60%정도가 전향을 하였고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다. 사회참관을 시켜주면서 국군 참배탑에서 묵념을 하라고 시키는데 선생님은 이를 단호히 거부하시는가 하면, 감상문에 “잘 봤습니다”라고만 적으면 되는 것을 오히려 남한사회에 대한 문제점을 길게 적어서 못매

를 맞은 적도 많다고 한다.

그렇게 매사를 강경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너무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선생님은 “자기목숨 같은것은 각오를 해야 해요. 그래야 용기가 나오고, 그런 용기를 가져야만 어떤 문제가 해결되는 거지”라고 일러주셨다.

선생님은 남에 가족이 있었지만, 한번도 찾아주지 않고 차입되는 돈이나 물건도 없었기때문에 그로 인한 외로움이나 고립감도 커울 것이다. 그러한 마음을 아시는 선생님은 차입된 돈이 있는 동지들끼리 조금씩 적립하여 아프고 연고가 없는 동지에게 약과 약간의 음식을 사주는 일종의 계를 조직하셨다. 6.10으로 인해 감옥의 분위기가 완화되기 이전까지 이러한 조직은 커다란 위험을 주는 일이었다. 중간에 그 조직이 흐지부지된 사이에 복막염을 앓으시면서 그돈으로 약을 얻으시던 동지 한분이 돌아가시게 되자 선생님은 크게 충격을 받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직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절감하시고, 조직책을 자임하셨다고 한다. 또한 6.10이후에는 감옥안의 음식물에 대해서 교도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선생님은 이일이 참으로 신경쓰이고 힘들어서 이때 암이 걸리신 것 같다고 회상하신다.

감옥에서 가장 끔찍한건은 단식투쟁을 할 때 하는 강제급식이라고 하신다. 사람을 강제로 묶어놓고, 드라이버로 다문 입을 비틀어 열개한 뒤에 나무를 물리고, 그 틈에 고무호스를 위까지 강제로 집어넣는다. 그나마 고무호스에 기름같은 것을 바른다면 조금 낳을텐데 그냥 쑤셔 넣어서 심한 고통을 느끼게 하고, 호스를 뗄 때도 살살 뽑으면 좋을것을 확 뽑아버려서 호스에 피가 묻어나오게 된다. 게다가 강제급식의 내용이 그냥 죽이 아니고, 소금을 반 이상 집어넣은 것이라고 한다. 며칠을 굶은 사람에게 강제로 소금을 먹여서, 입술이 다 타들어갈만큼 괴롭게 만드는 것으

로 이로 인해 죽음까지 맞은 선생님도 계셨다고 한다. 강제로 사람의 의지를 격는다는 의미뿐 아니라, 그 심한 고통으로 다시는 단식할 엄두가 나지 않도록 한다는 강제급식은 한마디로 고문과 같았다. 이러한 강제급식이 선생님들의 몸을 얼마나 상하게 했을지는 자명한 것이다.

33년동안 20여번 정도의 단식을 하셨다는 선생님은 91년 2월부터 하혈을 시작하셨다. 검사결과 위암으로 3달정도밖에 살지 못할것이라는 진단이 내려졌다. 선생님의 석방을 위해서 많은 민가협회원들이 교도소 앞에서 농성을 했고, 대전교도소내에서는 단식투쟁이 시작되었다. 장의균씨는 선생님을 위해서 토종풀 2상자를 구해주셨고, 28일간의 단식을 한 강용주씨를 비롯하여 많은 동지들이 격렬한 투쟁을 벌인 끝에 선생님은 형집행정지로 석방되셨다.

남동생이 보호자로 있었기때문에 석방된후, 남동생, 누님, 여동생의 집 등에서 지내시다가 여전히 여의치 않아 선생님은 성복동의 작은 한옥의 단칸방에서 자립을 시작하셨다. 선생님의 성복동 친구분이 도움을 주시고, 주차장에서 버는 돈을 틈틈히 저축하시면서 자취방을 장만하신 선생님은 방을 보여주시며, “살만하지?”라고 웃으신다.

남에게 도움을 줄 지언정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고 사셨다는 선생님은 평생 노동자로 사셨고, 그래서인지 노동으로 단련된 자신감과 건강한 현실감각을 잊지 않고 계셨다. 처음 암 선고를 받았을때에는 밥도 먹지 않고, 그저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면서 3일을 지내셨다고 하신다. 그렇게 누워있으면서 일생을 돌아보신 선생님은 “내가 북에서 그대로 살았다면 그저 노동자로서의 평범한 생활로 일생을 마쳤을 것이나, 뭐 이렇다하게 해놓은 것은 없다 하더라도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국통일을 위해서 일생을 바친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죽게 되더라도 북

에서 살았던 것보다 자랑스럽고 후회되지 않는 삶을 산거지”라고 정리를 하셨다고 한다. 이렇게 마음을 되잡고 나니 오히려 힘이 나서 살아야겠다는 의지가 생기셨다고 한다. 그래서 감옥에서 선생님을 병간호하시던 윤용기 선생님과 민간요법에 좋다는 풀을 뜯으러 다니고, 간수가 문을 항상 열어두어서 1층부터 3층까지 다니시면서 동지들과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실컷 하시는 등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하시면서 활력있게 지내셨다고 한다.

지금 선생님은 콩, 현미, 현미찹쌀로 된 혼식과 야채만으로 식사를 하신다. 기계공 전력이 있기때문에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일주일에 월, 수, 금 3일만을 나가는 주차장 일을 고집하고 계시다. 아무래도 몸을 너무 혹사시키면 안되니까 미리 조심하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 정겨운 사람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기 때문이다. 동지들의 T.V나 냉장고를 고치러 다니신다는 선생님께 여기 전파상에서도 못고치는 사람이 많은데 정말 고칠줄 아시나고 되물으니 “아 내가 일급 기계공이었는데”하고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놓치지 않으신다. 지금 후원회의 회망찾기(이대 87모임)와 자매결연을 맺으신 선생님은 그들과 영화도 보고 백화점 구경도 하셨다면서, “뭘 자꾸 사주려고 해서 곤란했어”라고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다.

두고온 가족이 있는 선생님은 북으로 가고 싶다고 하셨다. 아무리 지금 별다른 고통이 없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해도, 선생님의 병은 분명 진행성 위암이므로 마음 놓을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선생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셔서 암치료도 제대로 받아보시고 아들 딸과 편안한 여생을 보내셨으면 하고 바래본다. 그것이 우리가 선생님께 해드릴 수 있는 후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힘모으기를 절감한다.

드디어 되찾은 우리의 생일

김응도 (한국기독노동자서울남부지역연맹 회원)

오늘 해도 어김없이 노동절을 맞이 했다. 하지만 올 해의 노동절은 다른 여느해와는 다른 점이 있다. 비록 근로자의 날을 5월 1일로 옮겨 온 것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 노동자가 승리한 것이다. 그동안 노동절을 두고 정부와 얼마나 줄다리기를 했던가!

5월1일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우리 기노회원들과 모이기로 약속한 동국대로 향했다. 대회장에는 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있었고 홍겨운 노래소리와 힘찬 구호소리가 운동장을 떠나보낼 듯 했다. 드디어 대회시작. 첫 순서는 깃발입장이었다. 형형색색의 깃발들이 '단결! 전노대' 노래에 맞춰 단상 앞으로 나갔다. 깃발입장을 마치고 우리 회원들이 있는 대오로 돌아갔다.

연설을 듣고 모든 순서가 끝나갈때 가장 끝 순서인 상징의식이 있었다. 그런데 앞 사람들이 워낙 많아 잘 보이지가 않았다. 연설이야 목소리만 들리면 되니까 괜찮았는데 상징의식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속 없는 짐승이 아니던가! 투덜거리면서 그래도 어떻해서든지 구경하려고 무진 애를 썹지만 말짱 도루묵이었다.

이제 모든 순서가 끝나고 드디어 거리행진을 시작했다.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모여 정문을 빠져 나가는 데도 한참 걸렸다. 원래는 서울역까지 가려고 했지만 대학로 까지로 변경되었다. 거리행진 중간중간에 경찰과 실랑이를 벌이는지 행진 대오가 여러번 정지했다. 대한극장 앞에서도 또

실랑이를 벌이는지 대오가 멎었고 우리는 연좌농성을 하며 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웃음소리와 환호성이 들려 돌아보았다. 한 동지가 앞에 나와 '서울에서 평양까지'에 맞춰 춤을 추는데 그춤이 정말로 재미있었다. 지루한 시간에 여러 동지들을 즐겁게 해준 그 동지가 정말로 고마웠다.

대학로에 도착하니 7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행진을 시작한 것이 4시를 조금 넘어서니까 3시간 정도를 걸어 온 셈이다. 다리가 아파오고 목이 타고 몹시 배도 고팠다. 정리집회를 끝내고 가장 즐거운 시간인 뒷풀이를 하기위해 성대앞 곱창집으로 향했다.

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곰창집이란 곱창집은 이미 만원이었다. 이럴수가 이렇게 슬픈 일이… 우리가 들어 갈 만한 곳은 없었다. 이일을 어찌 한단말인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는데 소주라도 한 잔씩 하면서 그동안 밀린 이야기도 나누어야지. 궁하면 통한다고 드디어 한쪽 구석에 박혀있는 곰창집을 발견했다. (아! 눈물이 나온다.) 저녁밥 해결하고 술이 몇 순배 들고 그동안 밀린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뒷풀이를 끝내고 8월 범민족대회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전철에 몸을 실었다. 피곤한 하루였지만 정말 기쁘고 신나는 하루였다. 우리 노동자들의 생일을 되찾았으니까 말이다.

위대한 노동자여 영원하라!

즐거운 산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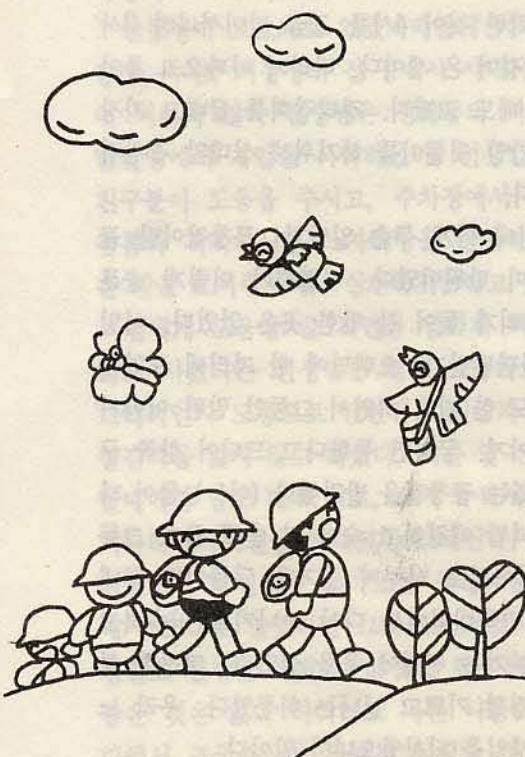
박선열(가원국민학교 6학년)

늘은 모처럼 엄마와 산행을 가는 날이다. 그래서인지
○ 뜰뜨지 않을 수가 없었다. 또 이번에 같이가는 일행은
— 양심수후원회 사람들이었다. 날아갈 듯한 기분으로 출
 발은 했지만 차가 막혀서 조금은 짜증도 났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겨우 일행을 만난 후 그 때부터 걷기 시작했다. 우리가 갈 산은 북한산이라고 했다. 한적한 길로 들어서자 답답했던 마음이 확트였다.

그리고 예쁜 꽃들도 많이 볼 수 있었다. 목련, 벚꽃, 철쭉,
 진달래, 개나리 산수유등의 꽃나무들이 등산로를 알록달록하
 게 장식하고 있었다. 이 화사한 꽃들을 정신없이 구경하느라
 엄마와 떨어져 걱정을 끼쳐드리긴 했지만 말이다.

알록달록한 등산로를 따라 걷다보니 기와집처럼 생긴 식당
 가들이 많이 나왔다. 얼핏 보았을 때는 멋으로 지은 아름다운
 곡선 지붕의 기와집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메뉴를
 적어 붙여 놓은 한식식당이었다. 적어는 메뉴를 보니 약간 출
 출해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래서 더욱 발걸음을 씌씩하게
 옮겼다. 점점 활기가 가득 차는 듯했고 발걸음도 빨라졌다.
 그러자 아주아주 작은 돌다리가 나왔다. 너무 작아서 몇 걸음
 걸으면 다 건널 정도여서 이름이나 알아두려고 했지만 한자로
 써 있어서 전혀 알 수가 없었다. 그 돌다리를 건너자 그때부
 터 진짜 산행길이 보였다. 나무로 둘러싸였고 길 양옆에 괴랑
 고 작은 새 풀들이 돋아나 있는 산행길이 말이다.

산행로에서 올려다보니 산이 푸르게 변하고 있었다. 날씨가
 풀린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벌써부터 산은 열심히 푸른 나무
 를 키워 싱그러움을 불어넣고 있었다. 가끔씩 물소리도 들려



왔고 이름 모를 새들도 상쾌하게
지저귀며 우리들을 맞이하는 듯했
다. 시원한 바람이 가끔씩 불어와
서 이마를 어루만지며 땀을 식혀
주어서 힘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오늘 산행은 아라, 예술(국민학교 2)처럼 나보다도 어린 동생들에
서부터 여든도 넘는 할아버지까지
오셨다. 할아버지들과 어린이들은
처음 가려고 한 산성까지 가기엔
힘이 많이 들것 같았다. 마음은 오
르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들 때문인지 정상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 물이 있
는 좋은 곳에서 점심을 먹었다. 사온 김밥이 오늘따라 더욱 맛이 있었
다. 점심을 먹고 깨끗한 계곡물 주변에서 놀았다. 맑고 차가운 계곡물
에 손을 담그니 온 몸이 젖어드는 것만 같고 시원해졌다. 위로 올라갈
수록 깨끗한 물이 흘러나왔다. 여름에는 사람이 많아져서 물이 더럽지
만 지금은 아직 사람이 적어서 꽤 깨끗했다.

한참 물에서 놀다가 모두 어울려 함께 서울에서 평양까지 노래를
부르며 무용을 했다. 무용에 모든 부분이 까다로웠지만 특히 다이아몬
드 스텝이 가장 하기가 어려웠다. 또 풍당풍당도 재미는 있었지만 이
미 내가 알고 있는 게임이었다. 하지만 더욱 재미있었다. 한참을 게임
으로 시간을 보낸 후에 사진찍기를 시작했다. 바위위에 앉아서도 냇물
앞에 서서도 사진을 찍었다.

그렇게 신나게 셔터를 눌러대다가 보라빛의 작고 연약해 보이는 꽃
을 발견했다. 그 꽃을 찍은 후 꺾어서 무슨 꽃인지 물어봤더니 제비꽃
비슷하면서도 아니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사랑스럽고 순수한 그 꽃을
꺾은 것이 무척 죄스럽게 느껴지고 꽃이 불쌍할 정도였다.

그 길로 곧장 산을 내려왔다. 다리가 아프고 피곤했지만 기분이 날
아갈 듯 좋았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테에 아쉬움을 말끔히
가시게 한 일이 벌어졌다. 내려오는 길은 말로만 들었던 4.19묘지였
다. 올해 34돌을 맞는 4월혁명의 열사들이 묻힌 곳이었다. 후원회원
들은 자신 임을 기리는 추모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임은영 언니가 지
도하는 ‘우리에게 땅이 있다면’의 노래와 몸짓으로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즐겁게 놀았다. 다음에도 꼭 산행을 가야겠다.



▲북한산 진달래 능선을 타고 내려온 4·19 묘지앞에
서 침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 한껏 웃어 본 회원들

어머니 사랑은 한이 없어라

편집부

여느때처럼 탑골공원앞에서 집회를 벌이시는 어머니들의 행렬 뒤로 공원 기둥을 의지하고 앉은채, 한 할머니가 열심히 박수를 치고 있었다. 언뜻 보아도 여든은 넘어 보이는 모습인데, 누군가 연설이라도 하면 웃거니 웃거니, 노래라도 부를때면 잘한다 잘한다, 쉬지 않고 장단을 맞추신다. 주위에서 시위를 지켜보던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묻는다.

“에구, 연세도 많으신 할머니가 고생이시네요. 할머니도 아드님이 감옥에 계시유?”

“그래요”

“얼마나 됐는데요”

“28년”

“28개월이요?”

“아니 28년”

“에?”

더 이상 아무 얘기도 못하고 혀를 내두르며 아주머니가 돌아간 후에도 집회가 진행되는 동안 내내, 할머니는 같은 몸짓이었다.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28년째 복역중인 신인영 선생님(66세)의 어머니 고봉희 님(87세)이 계신 곳은 남한산성으로 향하는 도로가 시원스레 열린 성남의 한 아파트였다. 어머님은 문앞에서 서성이며 기다리시다 낯선 방문자들을 반가이도 맞아

주셨다. 작년에 별세하신 둘째 아드님의 가족들과 함께 지내신다는데 깨끗하게 정리된 어머님 방에는 정성스런 봇글씨가 담긴 액자 세개가 나란히 걸려 있었다. 올봄 면회때 슬그머니 어머니 품속에 넣어주셨다는데, ‘어머니 사랑은 한이 없어라’로 시작되는 간결한 글씨가 어머님을 염려하며 몰래몰래 봇글씨를 익혔을 선생님의 모습을 선하게 했다.

“우리 아버지가 사회주의자셨어. 일제때 독립 운동하면서 활약도 많이 했지만, 그때문에 탄압을 받아 집안이 기울었지. 난 아버지 친구분의 중심으로 전라남도 부안으로 시집을 와서 아들셋, 딸 다섯 딸 팔남매를 낳아키웠어.”

사회주의자로 독립운동을 해오셨던 외할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선생님 또한 고교시절부터 학생운동을 하셨다 한다. 그러다 해방을 맞고 6. 25가 나서는 빨치산으로 활동하였다. “빨치산 나갔다 잡혀왔는디, 장질부사를 않아서 살아난 셈이야. 몸이 뜨겁다고, 장질부사라고 내줘서 살았다니까. 병은 떨어졌는데, 다시 잡아들인다는 소문에 기운도 못차린 채로 도망을 쳤지”

그후 선생님은 후퇴때 북으로 가셨고 그곳에서 가정을 이뤄 1남2녀의 자녀도 두었다고 한다. 그러나 선녀를 따라 하늘에 올라서도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땅으로 내려왔던 나무꾼처럼 선생

님도 위험을 무릅쓰고 17년만에 다시 고향땅을 밟는다.

반가움과 긴장감으로 가족들과 보낸 며칠 후, 다시 되돌아가려다 잡히어 지금까지 28년의 형을 살게된다. 그 세월은 혈육의 정을 끗이겨 해후한 며칠간의 댓가로는 너무도 쓰라린 것이었다.

“성격이야 좋지, 재미도 지고. 그도 안죽을 명이었던가벼. 그 고생속에서도 살아남았응께. 통일은 차차로 한다고 해도 간힌 사람들을 풀어줘야 할 것 아녀? 내 죽기전에 나와야 할텐디, 죽기 전이라도 내가 변해 망령이라도 들어서 그런거 저런거 모르면 살아도 뭘 할것이여?”

젊은 손님들 온다고 어머니가 직접 사오신 ‘얼음과자’를 먹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책장이 눈에 띠였다. 눈도 어두우실텐데 웬 책이 이리 많은가 이상하여 여쭈니, ”책? 내가 보는거지, 이런책 봤어? 장길산, 이것도 보고 태백산맥, 정순덕이도 보고, 책을 백권도 넘게 봤는디, 이젠 기억력이 예전만 못혀. 이런책들을 보면 다른 잡지책들은 재미없어 봇봐.”

책장안에는 요즘 새로 나온 시사잡지들도 몇권 눈에 뜨였다. 어머니의 총기에 그저 감탄만 하는 사이, 어머니는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물으시고 또, 그에 대한 생각도 덧붙여 말씀하신다. 얼마나 세상일에 민감하게 사시려하는지 알 수 있었다.

“혹시나 뭘 소식이 있냐 싶어 텔레비도 뉴스나 보지, 다른것은 보기도 싫여. 오늘 아침에는 19일날 미국서 북쪽에 회담하자고 서한을 보내겠다고 하던디. 믿을란계 지루하고 열통터져 죽겄네.”

새벽4시에 일어나서 TV시작 첫 뉴스를 보고 다시 자정넘어 마감뉴스까지 꼭 보게 된다는 어머니. 눈과 귀를 온통 열어놓고 산지 몇십년인데 아직까지 기쁜 소식 한자락 들리지 않는 것이다.



신인명 선생님의 어머니 고봉희 님.

87세의 노구에도 불구하고 교도소에 있는 66세의 아들을 만나러 가시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다.

그나마 함께 싸우는 사람들이 있기에 무거운 몸 이끌고 한달에 몇번씩 성남에서 종로까지 오고가는 것이다. 나중에도 자식의 힘이 될 사람들이 너무도 소중하신 것이다.

“고맙다는 인사밖에 더 하겠소. 그런 사람 하나 없다면 얼마나 맴이 막막하겠소. 내가 힘이 있다면 얼마나 열렬하게 활동할까마는 내가야, 목요집회도 나가서 한바탕 떠들고 울어제끼고 싶은디, 기운도 없고 힘도 부쳐서 못 그라지.”

그래도 어머니는 무슨 행사만 있다하면 가만히 계시지 못한다. 작년 범민족대회때에는 따님과 함께 참가하여 밤 12시까지 박수도 쳐주고 응원도 해주다 돌아오셨다고 한다. 그나마 올해 들어서는 “학생들이 데모도 안하고 조용한게 깁깝해 죽겠다”고 하셨다.

지난 3월 면회때, 신선생님은 침술을 공부하시

겠다고 하셨단다. 자신은 몸도 성하고 마음도 편하게 지내니, 그저 어머님 건강만 하시라고 매번 당부하신단다.” 어머니가 살아계셔야지, 어머니 돌아가시면 내가 금방 사그러들것 같소’ 매번 그래. 아유, 나는 이제 몸도 말을 안듣고 하루라도 빨리 죽고잡픈데, 즈그 나와서 즈그 식구들 만나는 것까지 보긴 해야 할 텐디”

자식 8남매를 낳아 모두 건강하고 훌륭하게 키웠어도, 감옥안에서 청춘을 보내고 흰서리를 맞은 자식 하나에 어머니 마음은 항상 겨울이다. 부디 건강하시라고 인사를 드리고 돌아서는 길에 우리는 모두 마음이 무거웠다. 여든이 넘은 나이에 그 정도 정신과 건강을 갖고 계신것은 어머니의 복이 아니라, 그저 자식 하나 지켜주려는 어머니의 의지력인 것이다. 어머니가 오가시며, 몇번을 쉬었을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내내 어머니의 한숨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67년 재판을 받을 당시 환히 웃고 계시는 신인영 선생님. 어머님께서 면회를 오실 때면 늘 이번이 어머님을 뵙는 마지막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라신단다.

5월 산행

80년 광주영령들이 우리네 역사를 환히 밝혀주는 5월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5월,

다시 5월을 새겨보며 북한산에서 우리 갈 길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 일 시 : 광주항쟁 14주년 5월 22일 (일) 이른 10시
- 장 소 : 연신내 전철역 ②) 매표소 (지하철 3호선)
- 어디로 : 북한산
- 준비할 것 : 도시락, 회비 3,000원

- 4. 1.** • 민가협 구속학생학부모협의회 월례회의가 사무실에서 있었어요.
• 민청학련운동 20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 4. 2.** • 대구교도소에 수감중인 홍명기 선생님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 고 김남주 시인 49재 및 추모모임이 3시, 대각사에서 있었습니다.
- 4. 3.** • 보라매 병원에 입원중이신 박현채 교수님 병문안을 다녀왔습니다.
- 4. 4.** • 독일 양심수후원회 이영숙 님이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 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8명 일동이 김지현 님의 쾌유를 바라며 영치금을 모아 100,00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창실안의 아름다운 마음,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 기독교연합회관에서 오글 목사님과 시노트 신부님의 환영모임이 있었습니다.
- 4. 5.** • 음성 꽃동네에 계시는 유한옥, 김광삼 선생님을 찾아뵈려 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광삼 선생님께서 4월 1일 새벽, 위암으로 운명하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4. 6.** • 민가협 목요집회가 오후 2시, 탑골공원 앞에서 “조작간첩 진상규명”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정 영 선생님(12년 복역)의 따님과 김태룡 선생님(16년 복역) 누님의 사례발표가 있었습니다.
- 4. 7.** • 음성 꽃동네 묘지에 누워 계시는 김광삼 선생님을 선생님의 동지들, 천정연 장기수가족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일꾼들과 함께 참배했습니다. 추모모임을 끝내고 유한옥 선생님 면회를 했습니다.
- 4. 8.** • 민청학련 사건 4·9 통일열사 추모제가 그때의 서대문구치소 사형장이었던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열렸습니다.
- 4. 9.** • 「후원회소식」 30호 발송작업을 했습니다.
• 서울민주시민연합이 주최하는 김지현 님돕기 하루주점을 다녀왔습니다.
- 4. 10.** • 문국진과 함께하는 모임에서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및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 4. 11.**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회원교육 문제와 양심수 석방운동을 더 열심히 벌여나갈것과 지금 준비중인 가칭 한국인권단체협의회 참가할 것을 결의하였습니다.
- 4. 12.** • 「후원회소식」 30호 950부를 발송했습니다. 허유정, 한금주, 최진만, 김태일 회원이 애써주셨습니다.
- 4. 13.** • 성모병원에 입원중인 지도위원 김승훈 신부님(여의도 성당)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고덕동 시립양로원에 계시는 임병호 선생님을 면회했습니다.
- 4. 14.** • 민가협 목요집회가 있었습니다. 장창호 님(민애전 사건)의 부인, 장민성 님(사노맹)의 어머니, 송갑석 님(4기 전대협 의장)의 누님등의 석방호소와 고난 중창단의 노래가 어울렸습니다.

- 4. 15.**
- 4월혁명연구소에서 4월혁명 34돌 기념강연 및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올해 4월 혁명상 수상은 민가협과 임수경 님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후원회 운영위원으로 되신 이균영 교수님(동덕여대 국사학과)께서 '한길사'에서 마련해 주고있는 단재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 대전교도소 송갑석 님 접견을 다녀왔습니다.
- 4. 17.**
- 산행이 있었습니다. 모두 47분이 참석하셨고 북한산 진달래 능선을 다녀왔습니다. 산행 이후 수유리 4.19탑을 참배하여 그날의 함성을 되새기고 고인들의 뜻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 권오현 회장님께서 형님 상을 당하셨습니다.
- 4. 18.**
- 민가협 회원들이 민주당 대표실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 제6차 총회준비위원회 두번째 모임이 있었습니다. 안건은 3월 재정보고, 총회순서 검토, 총회보고서 점검등 기타 실무점검이 있었습니다.
- 4. 19.**
- 민주당사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어머니들께서 농성을 푸셨습니다.
- 4. 20.**
- 강남병원에 입원하신 임병호 선생님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4. 21.**
- 민가협 목요집회가 "조작간첩 진상규명을 위한 사례발표"를 주제로 열렸습니다. 김성만 님(구미유학생 사건)의 어머니, 이상철 님(납북어부 사건)의 동생, 장의균 님(일본유학사건)의 부인의 사례발표가 있었고 전문노협 노래패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 총회보고서 원고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 94년 1, 2, 3월 회계 및 일반감사를 진관 스님과 박창원 선생님께 받았습니다. 회칙에 준하는 사업이 진행되었음과 재정 입금, 지출이 틀림없음을 확인받았습니다.
 - 통일맞이 7천만 겨레모임 발기인대회가 있었습니다.
- 4. 22.**
- 명동성당으로 김수환 추기경님 비서신부님을 찾아뵙고 감사패 증정과 관련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 푸른영상에서 총회때 상영할 비디오를 편집했습니다.
- 4. 23.**
-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제6차 정기총회가 종로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173분이 참석한 총회에서는 한해를 이끌어나갈 임원 선출과 한해 사업계획 및 예산안 채택이 있었습니다.
- 4. 24.**
- 총회참석차 서울에 올라오신 김종호, 김동수 선생님께서 4.19 묘지참배 후 내려가셨습니다.
 - 고 김세진 열사 8주기 추모모임이 서울대에서 있었습니다.

- 4. 25.**
- 미국수도장로교회(조명철 목사님)에서 성금으로 399, 810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변함없는 성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 미국에 살고 계시는 Nam, E 선생님께서 후원금으로 160, 245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멀리서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 5분의 장기수 선생님께 「말」지를 발송했습니다.
 - 고려병원에 입원중이신 유가협의 박정기 아버님(고 박종철 열사 아버님, 심근경 색증)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 4. 26.**
- 고 문익환 목사님 추모예배가 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 고 강경대 열사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 4. 27.**
-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장기수 109분에게 영치금을 보냈습니다.
 - 고 문익환 목사님 추모비 제막식이 모란공원에서 있었고, 연세대에서는 추모공연이 열렸습니다.
- 4. 28.**
- 민가협 목요집회가 “최근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사태”를 주제로 탑골공원앞에서 열렸습니다. 「일터」 편집부장 박치관 님의 부인, 희망새 황성현 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한양대 노래패 “소리개벽”이 노래로 함께 했습니다.
 - 「후원회 소식」 31호 편집모임이 있었습니다.
 - 반전반핵 양키고홈, 김세진 이재호 열사 8주기 추모제 및 반미결의대회가 서울 대에서 열렸습니다.
- 4. 29.**
- 기독교 라디오 방송 “오늘과 내일”의 만나고 싶은 사람 시간에 권회장님께서 출연해서 후원회 활동과 인권현실에 대한 대담을 나누었습니다.
- 4. 30**
- 노동절 전야제가 동국대에서 열렸습니다.

~5. 1

“인권문제는 이제 사라졌다”는 문민정부,
“인권상황이 전혀 나아진 것이 없다”는 증언이 여기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호 발간!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에서는 지난해 8월 4월부터 매주 5일 팩시밀리를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사무실로 인권하루소식을 배달하는 인권전문 팩스신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팩스가 없는 분들에게도 주 1회 우편으로 발송하며 구독료는 협회에 따라 1~3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1호는 준비 1호부터 올해 2월 4일 제100호까지 한권의 책으로 묶었으며 340쪽, 값은 15, 000원입니다.

■ 자세한 것은 전화 796/8364-5로 문의바랍니다.

● 4월에 구속된 양심수

- 4/ 7 - 정병철, 김종현(군인, 광주대), 신평식, 김현주(군인, 전남대), 박길용(군인, 호남대),
박향순(광주교대 졸), 이광휴(서강전문대 졸), 문혜영(전남대) : 남총련 산하
평화실현학생연맹 사건.
- 4/15 - 안성혜, 허명순, 최경아 : “희망새” 사건.
- 4/16 - 김판수(경성대) : 민자당 시위관련
- 4/22 - 이정영(전 신일금속노조위원장) : 부산봉수병원 쟁의관련.
- 4/22 - 장우석(서울대), 권영직(강남대) : 국방부 앞 시위관련
- 4/19 - 김정수, 마성준, 서유창(호남대) : 미문화원 앞 시위, 화염병운반
- 4/19 - 박치관(일터출판사 편집부장) : 출판물 관련
- 4/ 4 - 이재남(기아차위원장), 배범식(쌍용차위원장) : 공무집행, 폭력

●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 | | | |
|---------------|---------------|----------------|
| 이태영 (구로구 고척동) | 김부섭 (영등포 문래동) | 은종복 (풀무질 서점) |
| 김경중 (영등포 문래동) | 김영민 (서초구 서초동) | 김영순 (서대문구 충정로) |
| 윤민희 (경기도 수원시) | | |

● 알려드립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이사하셨습니다.

낙성대에 살고 계시던 이종환, 조창손 선생님께서 집을 옮기셨습니다. 곧이어 5월 말 쯤에
는 수유리의 이종, 최남규 선생님께서 그곳으로 옮겨 함께 사시게 됩니다.

주소는 관악구 봉천동 1690-141호, 전화번호는 역시 877-6687입니다.

그리고 이경구, 황용갑, 김영만 선생님께서 다음 주소로 이사를 하셨습니다.

이경구 : 마포구 동교동 147-50 전화번호 338-9618(4월 3일)

황용갑 : 관악구 신림1동 1629-76 전화번호 867-9497(4월 17일)

김영만 : 구로구 구로본동 476-87호 6통 9반입니다(5월 1일).

■ 제호가 바뀌었습니다.

창간호부터 이제까지 사용했던 「후원회소
식」 제호를 써 주셨던 주혜민 회원님께 감
사드립니다. 이번호 부터는 오병철 선생님
께서 오랜 옥고에서 익히시어 정성껏 써
주신 새 글씨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두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오병철 선생님 약력

- 1937. 8. 15 경남 합천에서 나심.
- 서울대학교 철학과 졸업
- 서울대 민통련사건(1961), 인민혁명당사건(1964)으로 투옥되심.
- 1968.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20년 옥고끝에 1988년 출소하심
- 지금은 신촌에서 ‘제검관’(검도장)을 열어 건전한 몸과 마음을 닦는 수련장으로 여러분을 지도하고 계심

◆ 양심수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온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분단의 상처를 가슴 한켠에 묻어
둔 채 350여명의 양심수들은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민정부'라는 유행어도 양심수들에게는 감옥
밖에서나 존재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 양심수들 중에는 적개는 10년, 심지어는 43년 동안
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7명이나 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 것
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 때문이라는 반성을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햇빛 한 점 자유롭게 맛볼 수 없는
분들께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 사
랑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 하
지 않으시겠습니까?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② 3,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께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③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외부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④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2606 (F) 745-5604

① ② ③ — ⑤ ④ ②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탁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 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